

# 고로쇠 약수마시고 봄기운 돋우세요

봄이 오는 소식은 지리산 고로쇠약수채취에서도 그 기미를 엿볼 수 있다.

고로쇠는 해발 600~1000m 고지대에서 자생하는 단풍나무과의 활엽수. 우수 이후 고로쇠나무의 몸통에 상처를 내 뿌리에서 줄기로 올라가는 수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해 얻는다.

고로쇠 수액에는 당분 철분 망간 등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산후병이나 신경통, 위장병, 고혈압, 비뇨기계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로쇠라는 이름은 관절에 좋다는 골리수(骨利樹)에서 유래된 말이다.

고로쇠약수는 경칩을 전후해 채취한다. 전국의 생산지중 지리산 일대가 가장 채취량이 많다. 전남 구례군에서는 마산면 황천리 화엄사 뒤편, 토지면 내서리와 내동리, 산동면 위안리와 사상리 등이 유명하다.

또 경남 하동군의 쌍계사 근처, 전북 남원시 달궁계곡과 뱀사골, 전남 광양시 옥룡면 백운산 일대, 전남 순천시 조계산 일대 등도 고로쇠 수액의 명소다.

고로쇠약수는 아무리 많이 마셔도 배탈이 나지 않는다. 뜨거운 온돌방에서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웃놀이와 같은 오락을 즐기면서 오징어 멸치 명태 등을 곁들여 밤새 마시면 체내에 있는 노폐물이 소변과 함께 빠져나가고 고로쇠수액의 영양분이 체내에 골고루 흡수된다. 또 흑염소나 토종닭을 고로쇠수액에 넣어 삶아

먹거나 수액으로 명태국이나 미역국을 끓여도 좋다.

고로쇠물 가격은 18l, 10l, 2l들이 한통에 각각 5만500원, 3만원, 1만원 등이다. 자동차로 운반할 경우는 온도상승 등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로쇠나무는 일기변화에 민감하여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거나 더워지면 수액공급을 멈추기 때문에 현지상황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또 너무 많은 양을 채취하

면 수목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리산프라자호텔(0664-782-2171)은 3월31일까지 커피숍에서 고로쇠약수를 판매하는 한편 토종닭과 한약재를 고로쇠 수액에 넣고 끓인 고로쇠영양백숙도 호텔내 레스토랑에서 판매한다. 택배판매도 실시중이다. 또 일성지리산콘도(0671-636-7000)도 고로쇠약수를 판매하고 있다.

## 대구약령시 활성화 대곡동에 약초 식물원

대구시는 한의약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약령시 거리에 한방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대구 한의약 발전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대구시에 따르면 달서구 대곡동 대곡생태공원에 5천평 규모의 한약초 식물원을 최초로 설립, 6백50종에 이르는 한약초의 우량종자를 보존, 생산해 대구를 전국적인 한약재 공급산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3백50년의 전통을 가지면서도 최근 크게 퇴색한 대구약령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남성로 8백m를 한방 테마거리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성로의 차량통행을 제한, 거리를 따라 구기자, 익모초, 결명자, 구절초, 오갈피나무 등의 한약초와 한약재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한의약 종사자가 공동 참여하여 한약재 규격품 생산공장을 설립해 대구 한의약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공동브랜드 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또 약령시 전시관을 박물관으로 확대개편하여 한방 지식을 체계화하고 약령시 일대의 고가옥을 보전, 수리, 관광코스로 개발할 계획이다.

## 한강변, 한의학 문화벨트 조성

강서지역 일대 한강변의 탐산~공산~개화산을 잇는 한의학 문화·관광벨트가 조성된다.

강서구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입증된 탐산을 중심으로 인근의 허준기념관과 허

## 전량 수입의존 '감초' 고랭지대체작목 육성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감초가 강원도내 지역 특화작목으로 중점 육성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원주·홍천·평창·양구 등 4개 지역에서 감초를 시험재배한 결과 10a(300평)당 312만원의 고소득 작목으로 전망됨에 따라 감초를 고랭지지역 대체작목으로 점차 보급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2,000만원의 도비를 투자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 감초의 도내 적응여부 재검증과 파종·시비·제초·병해충 방제·종묘 채종 등 기초재배기술을 연구해 2001년부터 감초를 농가에 본격 보급할 계획이다.

감초는 중국의 감숙성과 신강성 등 북위 40도 내외의 아한대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으며 한약재의 필수원료로 소비량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국내에서는 전혀 생산되지 않아 연간 5,000톤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해 쓰고 있다.

특히 감초는 천연당을 추출하여 가공식품이나 기능성식품, 식품첨가제 등으로 이용범위가 넓고 신소재 물질로의 개발 잠재력도 뛰어나 국내 소비량이 연간 1만톤 규모로 급증할 전망이어서 지역특화작목으로 집중 개발할 경우 경제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씨바위, 겸재 정선의 유적, 향교 등을 연계한 관광·문화자원 벨트화사업을 올해부터 오는 2002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강서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말 한양대 관광연구소와 공동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에 착수했으며 늦어도 올 상반기중 관련 계획만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연차적으로 모두 5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된다.

우선 한의학 전문가를 배출할 '의성 허준학교'와 일반인들이 직접 한의학을 체험할 수 있는 치료 희락체험 리조트타운, 치료레저와 레크레이션 스포츠타운, 무공

해 토속식품 재배농장과 관련 시장 등이 포함된 '동의 보감 체험타운'을 구암공원 등 적지에 마련할 계획이다.

허준기념관을 중심으로 구암축제 등 본격적인 문화축제를 열며 인근에 국내 최대의 약령시장과 대규모 한약초 재배단지, 생약시험장 등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탐산과 개화산 권역에 산재해 있는 허씨바위, 겸재 정선이 시화를 즐기던 소악루, 서울 유일의 양천향교와 봉수대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공산일대의 옛 성터 등 문화재도 복원, 이곳을 자연친화적 문화공원으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 내고장 특산물

또 군은 야생상태에서 채취한 우리꽃 씨앗을 실습포에서 싹을 틔워 화분에 옮겨 심는 재배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 한방 향토음식마을 조성 제천시 탄지리에

'한방백숙·홍화매운탕·팩반석황토구이등 한방요리 맛보세요' 충북 제천시지역에 특산물인 황기, 당귀, 홍화 등 약초를 이용한 음식을 선보이는 한방향토음식마을이 조성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충주와 단양을 잇는 36번 국도 주변인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에 2년여동안 1억1000여만원을 지원, 한

방향토음식마을을 조성해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나서고 있다는 것.

제천향토음식연구회 등이 한방 음식의 상용화를 위해 선보인 향토음식시범마을에서는 황기, 당귀 등을 이용한 한방숯불구이·한방백숙·한방장어구이·한방닭도리탕을 비롯해 홍화(잇꽃)을 이용한 홍화매운탕, 산거리송이매운탕등 20여가지 맛볼 수 있다.

특히 이 한방시범마을은 국립공원 월악산과 송계계곡 등이 인접해 있고 충북 내륙순환관광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관광 활성화와 지역부존 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한편 시농업기술센터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170평 규모의 헛터를 조성하고 홍보관과 팸플릿제작 등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 유자비누 개발 시판 경남거제시

경남 거제지역의 특산물인 유자를 활용한 소비방안이 잇따라 선보여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거제시 사등면 한려농산(대표 김철환)은 지난해 12월 자체 보유한 유자가공공장에서 거제산 유자를 이

용한 '유자비누'를 개발 시판중이다.

유자비누는 유자에서 추출한 비타민E에다 구연산과 한방약재 16종을 섞어 가공한 것으로, 유자의 고유한 향이 지속됨은 물론 유자가 공 비누보다 단단해 상품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최근 거제시 능포동과 신현을 고현리에는 유자목욕탕이 첫선을 보여 호평을 얻고 있다.

거제시가 유자 소비촉진을 위해 올해초 생유자 300kg과 유자즙 100l를 2곳에 지원, 생유자는 망에 담아 탕에 넣고 유자즙은 샤워크림 등으로 이용토록 한 결과 피부미용 효과가 뛰어나 건강육으로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 충남 청양군 칠갑산 우리꽃 관광상품화

충남 청양군 칠갑산에 자생하는 우리꽃이 관광상품으로 개발된다.

청양군은 오는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 출품하고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해 군농업기술센터에 100평의 우리꽃 재배 실습포를 마련, 생산된 꽃을 농가에 보급해 관광상품화 하기로 했다.

군은 이 시범포에 갯쟁이풀·금낭화·앵초·동의나물·섬초롱·금새우·범부채·노루오줌·매발톱꽃·은방울꽃 등 우리꽃 20종을 계절별로 선정해 심을 계획이다.